# 섬이 살아야 신안이 산다…군 "살 만한 섬 만든다"

## 지도읍 소포작도 등 10명 미만 '작은 섬' 정주여건 개선
## 무인도 정박시설 조성·규제 완화 등 이용 편의 제고 힘써

인구소멸 시대에 서해안과 남해안에 산재한 작은 섬들도 예외는 아니다.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유인도에서 무인도로 전락하는 시점이 코 앞에 다가온 작은 섬만도 10곳에 달할 정도여서 위기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이 유인도의 불편했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민이 적은 작은섬이나 무인도를 이용자 중심의 살만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신안군은 앞서 인구소멸 시대에 사람이 살만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작은 섬을 만들어 무인도화를 막기 위해 고심하며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조금 큰 곳에 '1 섬 1정원'과 '1 섬 1뮤지엄 건립 사업', 마을마다 색깔을 입히는 '컬러마케팅'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 섬 전체가 온통 보랏빛인 '퍼플섬' 등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주목 속에 성공을 거뒀다.

신안군은 작은 섬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이런 작은 섬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주민 1명이 사는 지도읍 소포작도에선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벌인다.

10명 미만 거주 25개 작은 섬을 대상으로 5년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의 '작은 섬 공도(空島)방지 사업비' 지원 대상에 소포작도가 포함됐다.

군은 지방비를 포함 8억원을 투입해 선착장 등 소작포도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군은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를 방치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 역시 중앙정부와 함께 고심하고 있다.

신안 무인도는 유인도서의 13배에 달한다.

하지만, '무인도서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간 무인도로 간주한다'는 규제에 막혀 무인도에 전입해 생활하거나 민간주도 개발은 쉽지 않다. 또 지자체나 민간 주도로 무인도를 개발할 때에도 특혜 의혹을 받기도 한다.

군은 이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무인도서 이용자원 발굴과 활용, 기반시설 도로, 항만시설,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해양수산부도 무인도서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반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임시 정박시설 등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규제를 완화해 무인도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유인도와 무인도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이용 방향으로 개발하고, 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때 섬의 가치와 신안의 미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안도서 정책도 보존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꿔 보석 같은 '1004 의 섬'들을 살기 편하고 경제적 가치가 큰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안좌면 퍼플섬에 보라색 버들마편초꽃이 만개해 있다. 〈신안군 제공〉

# 현대삼호중, LNG추진선 동시 충전 '실증특례사업' 개시

## 최대 4대 탱크로리 동시 연결
## 충전 완료 40시간→12시간
## 온실가스 배출량도 65% 줄어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에 대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증특례사업을 개시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오는 8월부터 현재 건조 중인 1만 480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등 9척에 대해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과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장치)를 활용, 최대 4대의 탱크로리를 동시에 연결해 선박 연료를 충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한 결과, 지난 9월 5일자로 최종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시행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LNG추진선은 한 번에 2대 이하(1대 충전, 1대 대기)의 탱크로리로만 충전할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LNG추진선 연료 충전시험 개념도.

이 때문에 선박이 해상 시운전을 위해 필요한 600t 가량의 연료를 충전하는데 약 40시간이 소요돼왔다.

하지만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해 탱크로리 4대를 동시에 연결할 경우 12시간이면 충전이 완료되며, 시간 단축으로 인한 증발가스 감소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기존 대비 65%가량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사업을 위해 규제 부처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규제특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실증사업 전용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실증 구역은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 내 1안벽이며, 실증 기간은 사업 개시 후 2년간 유효하다. 사업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앞으로 이중연료추진 선박의 친환경 연료 충전이 단시간 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해남을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중심지로"

## 삼산면 평활리 일원 2026년까지
## 전국 최대 농업연구단지 조성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한 해남군이 센터가 들어서는 삼산면 평활리 일원을 농업 기후변화대응 중심지로 키울 계획이다.

해남군은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 2026년 가동에 발맞춰 전국 최대 규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는 총 60ha 규모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남도 과수연구소(25ha), 군 농업연구단지(30ha)가 들어선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 통과했다.

올해 토지 보상비와 기본 설계비를 확보했으며, 하반기에는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대응센터의 세부 역할과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6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 설계 용역에 착수해 같은 해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본부 역할을 한다.

전국 도 단위 농업기술원을 지역센터로 활용해 기후와 밀접한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대응 핵심지로 활동한다.

해남군은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서는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한다. 〈해남군 제공〉

전남도 과수연구소 건립에는 사업비 295억원이 들어간다.

2층 규모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와 비닐하우스, 온실, 노지실증포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해남군이 조성하는 농업연구단지에는 고구마 연구센터와 청년 농업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등이 구축된다.

지난해 9월 군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단지 구성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달 입안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와 착공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군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완도군이 '2023년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2018년 제정된 '청년 친화 헌정 대상'은 지자체의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사)청년과미래가 주관한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로 상을 선정해 의미가 남다르다.

군은 2018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센터 '완생' 운영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등 여러 분야의 정책 추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9월16일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 완도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함께 해요! 고향사랑

명형관 해남군수와 고향사랑기부금 고액 기부자들이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해남군, 고향사랑 명예의전당 조성

## 신청사 2층 역사관 벽면에 마련…헌액식도

해남군이 장학사업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신청사 2층 역사관 벽면에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을 마련했다.

헌액 대상은 누적기탁액 500만원 이상의 개인 및 단체이다.

군은 기부자의 이름 또는 상호를 명패에 새겨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기부자들에게는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헌액증서를 전달한다.

군은 지난 22일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갖고 고마움을 전했다.

해남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대상은 1억원 이상 '플래티넘'에는 최고액을 기부한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와 (주)광주은행 해남지점이 이름을 올렸다.

3000만원 이상 '실버'에는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1000만원 이상 '브론즈'에는 원광전력(주), 해남군농협조합운영협의회, 해남군절임배추생산자협의회, 두륜산업개발(주), (주)뉴텍, 해남군어류양식협회, 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 해남군산림조합, 옥천산업(주), MG해남새마을금고, 가수 오기택 장학재단, 고해남(황산 시등마을), 농업회사법인 해남버섯(주), 대흥콘크리트(주), 농업회사법인 (주)에스비원, (사)대한한돈협회 해남지부, (주)남경에스텍 김보수 대표이사, (주)현대아미스 김우열 대표이사, (주)코아스 김영태 대표이사가 헌액됐다.

또 500만원 이상 '프레스티지'에는 광주새천년약국 유경식 대표, 세왕섬유(주) 최재락 대표이사, 다스코(주) 한상원 대표이사, (주)건주이앤씨 강봉관 부사장, 한아름건설(주) 민억기 대표이사, 금양건설 김재국 대표, 금강건설㈜ 배경호 부사장, (주)신원산업공구마트 이호남 대표이사, 유성주(황산 평덕마을), 해남향교연산장학회 유경록 이사장의 이름이 새겨졌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 살맛나고 행복한 해남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목포농협-서진도농협 고향사랑 '품앗이'

목포농협과 서진도농협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 내면서 지역 발전에 뜻을 모았다.

두 조합 임직원들은 520만원씩을 모아 상대 조합에 냈다.

최근 열린 기탁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 강성민 서진도농협 조합장, 고영인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장, 농협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정수(왼쪽) 목포농협 조합장과 강성민(오른쪽) 서진도농협 조합장이 각 조합 임직원이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520만원을 서로기부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 제도이다.

기부금으로 마련한 고향사랑기금은 주민 복리를 높이는 데 쓰인다.

박정수 조합장은 "목포농협은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홍보 및 추진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